

재미 GIST 동문, 발전기금 기탁

- 스탠퍼드대 등에서 연구활동 이어 가고 있는 재미 동문 5명 십시일반 기금... 지난 8월 23일(금)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첫 동문간담회에서 뜻 모아
- "적은 금액이라도 향후 동문회 발족과 운영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... 학교의 지원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뻐"



▲ (왼쪽부터) 김재관 대외협력처장, 박진호 졸업생, 임기철 총장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**해외에 거주하는 졸업생들이 십시일반 동참하여 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** 27일 밝혔다.

기탁식은 **행정동 5층에서 임기철 총장,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**

이번에 기금 모금에 동참한 동문은 ▲강군묵 학/석/박사 졸업생(현 Northwestern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) ▲박진호 학사 졸업생(현 Stanford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) ▲윤석경 학사 졸업생(현 University of Chicago 대학원생) ▲이연재 학/석박통합 졸업생(현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/UC Berkeley 박사후연구원) ▲한수영 학사 졸업생(현 University of California, San Diego 박사후연구원)이다.

지난 8월 대외협력처(처장 김재관)는 미국 서부권 거주 동문을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**GIST 동문간담회**를 개최한 바 있다. 이번 간담회는 미주권 동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인프라 확장 및 향후 해외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.



▲ 지난 8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GIST 동문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김재관 대외협력처장(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)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박진호 동문은 **"적은 금액이라도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뜻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, 향후 동문회를 발족하고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이번에 소수 인원이라도 우선 함께하게 되었다"**면서 **"학교의 지원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저희가 이제는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"**고 말했다.

강군목 동문은 **"GIST의 탁월한 연구 환경과 김용철 교수님의 헌신적인 지도 덕분에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"**며 **"약소한 금액이나마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, 작은 기부가 마중물이 되어 모교 발전을 위한 기부 문화가 동문들 사이에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"**고 밝혔다.

윤석경 동문은 **"GIST 재학 중 많은 혜택을 받았고, 덕분에 다양한 기회를 얻어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"**며 **"감사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였고,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다면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"**고 전했다.

임기철 총장은 **"학교 발전을 위한 해외 거주 졸업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"**며 **"작지만 소중한 뜻이 모아져 GIST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라며,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"**고 말했다.

한편, GIST는 이번 미주권 동문 간담회를 계기로 **해외 각지의 재외 동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**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.